귀 국 보 고 서

파견대학	절강수인대학교, 동화대학교
파견기간	18. 03. 01. ~ 19. 01.12.
프로그램	정규 / 학기제

1. 출국 전 준비사항

가. 유학생 보험, 비자, 항공권

나. 필요 물품(짐 꾸리기)

2. 파견국 및 파견 대학

가. 파견 국가의 언어, 문화, 물가

물가 : 중국 물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상해는 서울보다 비싸서 월 50만원 정도 사용하였다. (밥을 사먹을 경우)

문화: 상해는 외국인이 많아서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였고 이 때문에 중국 친구 사귀기가 다른 지역보다 어려웠다. (중국 절강성 항주와 비교해볼 때)

나. 파견 대학

나-1. 대학 선택 이유

경영학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국제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면서 꿈을 키워왔는데, 국제경영이란 어떤 것인지,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체험해보며 알 고싶었고, 주 전공이 중어중문학이여서 중국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싶었다. 그런데 우연히 학교 소개를 통해 동화대학교 7+1 프로그램의 '중국 비 즈니스의 실제'라는 수업을 알게 되었고, 이 수업을 통해 중국비즈니스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.

나-2. 공항 - 학교

<푸동공항 - 학교>

학교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푸동공항으로 가야하며, 공항에서 동화대학교 피켓을 찾아가면 된다. 푸동공항에서 학교로 직접 가려면 지하철을 통해 쉽게 갈 수 있는데, 먼저 지하철 2호선을 탄 후 3,4호선으로 갈아타 '옌안시루역'에서 하차하면 된다. (약 2시간 정도 소요)

<홍치아오 공항 - 학교>

홍치아오 공항에서 학교로 가려면 학교 픽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직접 가야한다. 홍치아오 공항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 하는 것보단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한다. (약 30-45위엔 정도) 나-3. 수강신청, 수업내용(프로그램 과정)

프로그램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고, 중국어 수업 내용은 듣기 말하기와 독해로 나누어져 있다. 중국어 수업은 8시 30분에 시작하여 12시 10분에 끝난다. 그 이후 1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7+1학기 글로벌 차이나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한다.

나-4. 기숙사(홈스테이, 쉐어룸 등)

유학생 기숙사는 총 3개의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, 1호동은 1인실, 2호동은 2인실, 3호동은 2인실과 4인실로 이루어져있다. 온수는 카드를 꽂아야만 사용할수 있으며 총 충전량은 400이다. 부족할 시에는 따로 구매해야 한다. (1 = 1위안)

전기는 처음에 200씩 충전해주며 부족할 시에는 관리실에 가서 말씀드리면 다시 충전해주신다. (전기량은 문 위에 있는 두꺼집을 통해서 두번째 숫자를 보고 알 수 있다. 또 너무 많이 사용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요금을 낼 수도 있다.)

퇴실 시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하거나 사무실에 직접 가서 퇴실신청을 말씀 드려야하며, 3호동 관리실에서 퇴실용지를 받은 후 방 검사를 해야만 퇴실이가능하다.

나-5. 교내·외 활동

동화대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다. 가입 시 가입회비가 있는 동아리도 있으며 무료인 동아리도 있다. 이 외에도 중국인 친구와의 1대1 매칭 프로그램인 'ITALK', 학교 학생회 활동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인친구들과 교류할수 있다.

나-6. 꿀팁(학교생활, 일상생활, 음식, 교통 등)

중국어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강의동이 항상 열려 있어서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공부할 수 있다. (10시에 문닫음)

학교 내에 카페가 있으며 따로 음료 주문을 하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어서 중국인 친구나 반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기 좋다. (외부음식 반입 금지)

'옌안시루'역에서 3,4호선을 타고 한 정거장만 지나면 '중산공원'역에 있는 '룽즈멍'이라는 백화점에 갈수 있다. 이곳에서 다양한 생필품을 살 수 있다.

이외에도 학교에서 15분정도만 걸어가면 '난평청'이라는 백화점에 갈 수 있는데, 이곳에서도 다양한 생필품을 살 수 있으며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다.

3. 여행 정보(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)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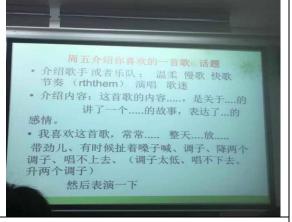
4. 후배들에게 한마디

이번 '7+1학기 글로벌 차이나'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님들을 만나 중국에서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는데, 그 중 최진영 강사님의 <중국 틈새시장 공략>과 정유선 강사님의 <중국 취업과 인턴준비하기>가 기억에 남는다.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. 또한 이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그저 서비스직, 무역 등만 생각하고 중국에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 비좁은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었고, 막연하기만 했던 중국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미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. 중국에 관심이 많거나 중국과 관련하여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.

5. 사진자료(대학교 전경, Classmate, Activities 등)







수업 활동(회화시간)



중국공산당1차대회기념관



상해 신천지 (7+1글로벌 차이나 프로그램 中역사탐방)